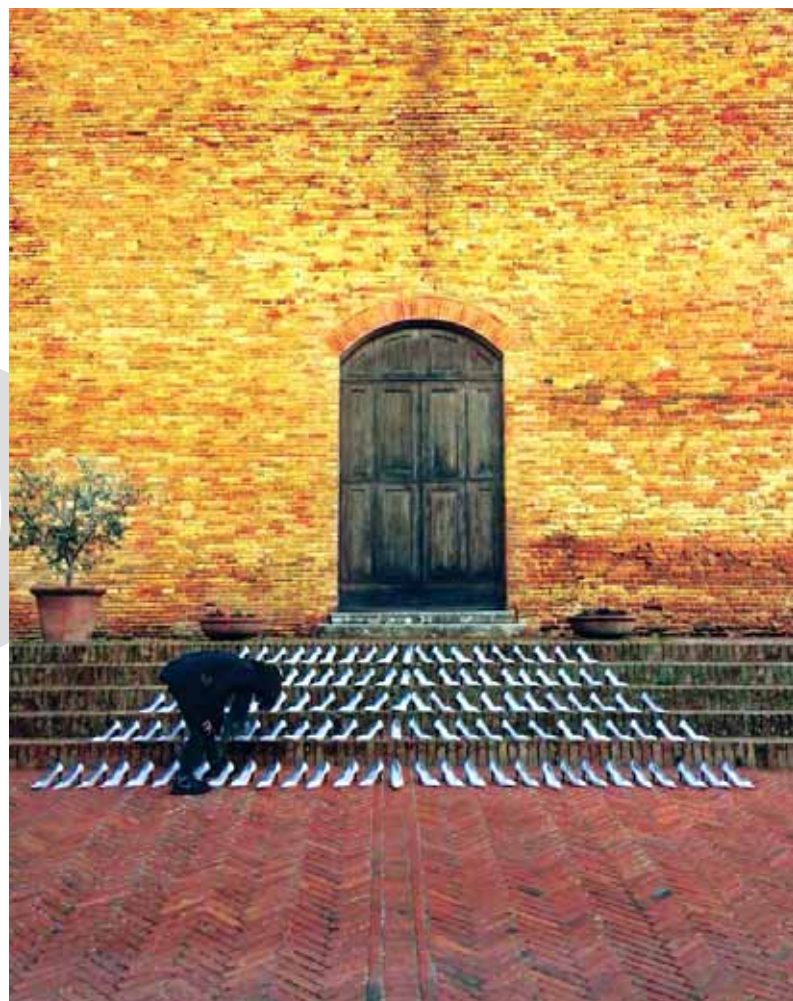


시간과 기억·재생과 순환·역사와의 소통

하이힐 작품에 담은 메시지 이 공간에

‘이매리 삶의 여정에서 만난 세상-침표와 물음표’전 10~22일 515갤러리

이탈리아 시에나 레지던시 한달간 참여
결과물·작업 과정 아카이브 형태로 전시



시에나의 성당 앞에서 ‘침묵속으로-시에나01’ 작품을 설치중인 이매리 작가.

우물·성당·골목... 도시 전체가 작품의 공간
선진화된 지원에 아티스트 토크 등 행사도

학교·지자체 협조 대학 교과과정에도 참여
“광주레지던시 뚜렷한 목표·지원 있어야”

여행은 우리에게 배움을 선물한다. 여행이라는 책을 넘길 때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단단해진다.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화폭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확신이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하이힐 작가’ 이매리씨가 짧지만 긴 여행을 다녀왔다.

이씨가 지난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이탈리아 시에나에 있는 시에나 예술학교(Siena Art Institute)의 레지던시 ‘2014 Visiting Artist Program’에 참여했다. 시에나 예술학교는 한 달 단위로 세계 각국 작가들을 초청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참여 작가는 각국 큐레이터들에게 추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작가들이 다녀갔고, 아시아 작가로는 그녀가 처음이다. 2011년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된 이씨는 3년간의 준비 끝에 시에나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씨가 처음으로 참여한 레지던시이기도 하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에나는 도시 자체가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박물관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예술혼들이 아직까지 숨을 내쉬고 있었죠. 건물 하나하나, 문양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이었습니니다. 순간 ‘이미 시각 예술은 여기에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업에 집중했다. 그러자 동양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양을 알려면 서양을 알아야 하고, 서양을 봐야만 동양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머리를 스쳤다. 리사이클 페이퍼를 활용해 만든 자신의 하이힐 작품에 담고 있는 시간과 기억, 재생과 순환, 그리고 역사와의 소통이라는 메시지를 시에나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것, 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매일 오전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도시 곳곳을 둘러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학교 내 공간을 비롯해 도시 전체가 제 작품 공간이 됐습니다.”

학교 내 폐쇄된 우물을 비롯해 성당 입구, 도심 골목, 길거리 곳곳에 하이힐 작품을 설치하는 그의 장소 특정형 작품들은 학교 교수는 물론 지역 예술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아티스트 토크, 오픈스튜디오 등의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러한 경험들은 형식을 갖춘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작가의 삶과 자신의 시선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결됐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작품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새삼 생각났다. 선진화된 레지던시의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광주 등 국내에도 수많은 레지던시가 많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죠. 시에나 레지던시는 학교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스튜디오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작가가 원하는 학교 교과 과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작가 한 명을 데려오더라도 만족하고,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더구나 지역 예술가, 인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에나라는 도시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곧 광주에도 많은 레지던시 공간이 생길 텐데 뚜렷한 목표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은 이씨에게 큰 자양분이 됐다. 앞으로 시에나의 교수, 작가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예정이다.

“후배 작가들도 좋은 기회를 얻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세계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씨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515갤러리에서 ‘이매리 삶의 여정에서 만난 세상-침표와 물음표’전을 연다. 시에나에서의 레지던시 결과물과 작업 과정을 사진형태로 보여주는 아카이브 형태의 전시다. 전시 개막은 10일 오후 7시다. 문의 062-654-300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매리

호남예술제 출신 남린, 예술영재교육원 합격

2012년 최고상 수상

꼬마 바이올리니스트 남린(10·조봉초 4년·사진)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2년 광주일보 주최 호남예술제(초등 저학년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초등학교 1~3학년이 경연을 벌이는 저학년부에서는 보통 3학년생들이 최고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결과였다.

남양이 최근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원장 김대진)에 합격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국가적 차원의 예술영재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200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설립한 최초의 국립 예술영재교육기관. 2014년에는 1996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2005년 1월 출생자를 대상으로 원생을 모집했다.

남 양은 1년간 매 주말마다 최고의 교수진에게 바이올린 지도를 받게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3살 때 피아노를 배우다 이듬해 바이올린을 시작한 남양은 호남예술제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유·스퀘



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진행한 ‘금호영재 오디션’에 최연소 합격, 단독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남양은 올해 광주 내셔널필하모닉과 협연 무대를 가진 데 이어 일본 도쿄 후츠노모리 예술극장에서 도쿄 프라임심포니오케스트라와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전 악장을 협연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지해 ‘독도 정원’ 런던展 철거 논란

日 외압... 투어 일정 조율

곡성 출신 가든디자인어 황지해씨가 영국에서 전시 중인 ‘독도’ 작품이 일본 측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외압으로 작품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

황지해(여·38)씨 측은 9일 “영국 런던 스탠드 갤러리에서 5~8일(현지 시각) 열리는 세계 최초 3D 프린트 미니어처 가든쇼에서 독도를 주제로 전시 중인 작품을 주최 측이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올릉도와 독도에만 서식하는 섬기린초, 섬초롱꽃 등을 배치한 ‘백만년 전에 날아온 편지-독도(사진)’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행사는 영국 왕립원예협회(RHS) 심사위원장 앤드루 피셔 톨린이 기획, 주최하고, 영국 3D기업 Hobs 3D가 후원했다. 런던 전시 이후 싱가포르,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호주 등 7개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황씨는 “주최 측이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인 선원 45명이 한국인에게 살해되는 참극이 벌어져 한국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감이 높다는 설을



제보자들에게 전해들었다’라며 작품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주최 측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인으로 추정된다”며 “사전에 주최 측과 충분히 협의는 했는데 불확실한 정보로 작품을 바꿔달라거나 철거해달라는 요구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황씨는 “주최 측이 이번 전시는 그대로 두겠다고 했지만 일본행은 취소하고, 나머지 투어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잘못된 해외 정보와 인식으로 인해 순수한 예술적·미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성유진 작 ‘후쿠오카의 추억’

‘후쿠오카의 추억’

잠월-은암미술관 공동 30일까지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은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과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잠월미술관에서 ‘후쿠오카의 추억’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전남지역 28명의 작가들이 지난 1월 조이트래블(대표 최금환) 여행사의 후원으로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한 후 일본문화와 전통에서 받은 느낌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참여작가는 김광옥·박문수·이선복·김광웅·조종희·임혜숙·명현철·성유진·정영숙(이상 한국화), 김재준·김재복·채종기·기한주·박태규·김희련·장문갑·이승희(이상 서양화), 박대엽·홍정옥(이상 사진), 전진현·정영화(이상 사진) 김호·손

만석·정수빈·문상웅(이상 애니메이션), 윤정귀(조소), 송명심(도예), 성혜숙(민화)씨 등으로, 모두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앞서 작가들은 일본 후쿠오카 뱃부에 있는 플랫폼 02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미술의 다양성을 일본에 소개했다.

김광옥 관장은 “일본 탐방을 마친 후 잠월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관객들과 후쿠오카의 추억을 나누고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일본에서의 전시 및 작가교류 등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국제교류전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외국작가들의 국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70-8872-671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3월 21일(금) 21시 출발

정동진·낙산사·휴휴암
무박2일 기차여행

날짜	시간	일정
3/21(금)	21:00	목포역/나주역/광주송정역/장성역 정읍역/익산역 출발
3/22(토)	05:00	정동진 도착 후 일출, 자유관광
	08:30	낙산사 도착 후관광

1인 요금 •성인 89,000원~ •경로(65세 이상) 86,000원~ •소아(만12세 미만) 76,000원~